업이 본래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각의 생각 자체입니다

☞ A29면에서 계속

니다.

그리고 관상이라 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심상을 올바르게 가진다면 관상도 좋아질 거고, 하하하, 수상도 좋아질 거고 족상도 좋아진다 이겁니다, 심상 하나만 좋으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상 하나가 좋으면 모두가 이 얼굴 자체도 전부 웃게끔 돼요. 그리고 심상을 잘못 쓰면 손장난도 나쁘게 나가죠. 걸음걸이도 나쁘게, 나쁜 일 하려니깐 막 돌아가죠? 허어, 그러니깐 족상이 나쁜 거고 수상도 나쁜 거고 관상도 나쁜 거죠. 그러니깐 "심상 하나만 올바르게 생각을 잘 해낸다면 관상도 수상도 족상도 다 좋으니라. 이래서 공덕이 되느니라. 그러니 족상이니 수상이니 관상이니 볼 게 아니라 심상 하나만 진짜로 잘 보고 잘 쓴다면 이거는 세세생생에 공덕을 이룰 것이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생각해 보면 허탕한 짓들을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보면 병이고 안 보면 약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모르걸랑 아예 보질 말아요, 허허허. 차라리 모르면 편안하게 마음을 둠으로써 편안한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구, 올해는 뭐가 또 언짢지는 않을까?' 하고선 가서 온통 관상도 보고 부적도 사고, 뭐 또 점도 치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 좋은 거는 세 가지라면 언짢은 건 일곱 가지나 돼요. 하하하, 그러니 누가 언짢고 누가 언짢고 누가 좋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냥 나올 수는 없죠.

그런 데다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주고 나오는 건 또 좋아요. 와서까지도 이 뇌리에 아주 알쏭달쏭하게 잠재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걸 어떡합니까? 조금만 일이 안돼도 '아이구,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아이쿠, 이것이 이렇게 돼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나가기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먹고살기도, 아주 올바로 먹고살기도 급급하고 참 고통스러운데, 하물며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고통을 받느냐 이 소립니다.

애고나 질병이나 망상 같은 거, 업보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애당초부터 붙어 있던 게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잠재해 있는 그 관습 때문에 아이구,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런 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 '아이구,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길래 이래?', '에이그, 죄를 그래도 많이 지었길래 그렇겠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애고가 생기면은 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즉 그 일어나는 마음이 그 업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하죠.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다고,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는데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딨고,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 쉴 자리가 어딨고,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습니까? 아니, 세상이 정맥 동맥이 막 똑딱 똑딱 똑딱 똑딱 그냥 막 뛰고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다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살아나온 관습들이 잠재해 있죠? 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또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일어나죠?

> 이 세상에 내가 났으면 바로 내 탓으로 일체 만법을 돌려라.
> 그런다면 증오도 미움도 없을 것이다.
> 그리고 세상 법에 누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니까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것이 망상이다 업보다 이러질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게 100%다 이런다면, 자꾸 생각이 나와야, 요것도 나오고 조것도 나오고, 요것도 보고 조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올 수 있어야 목석이 아니지,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요런 생각 조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하하하. 아, 그것더러 망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네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자생 중생의 업식들이, 업식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생 중생들이 자기가 자꾸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니 무슨 망상이니 이러니까, 퇴박을 하니까 '에이, 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 봐라.' 이러곤 그냥 망상으로 밀어가는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엘 다니면서 극진히 정성스럽게 하는데 '너는 요놈 도둑놈, 너는 요놈아, 만날 그래도 그런 것도 못 해!' 하면서 만날 지청구하고 그렇게 해 보세요. 정말 도둑놈 됩니다, 네?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불교라는 이 단어는 포괄적인 불교기 때문에 일체 생명 어느 거 하나 불(佛) 아닌 게 없으며 말로 전달, 뜻으로 전달, 통신으로 통신, 마음과 마음이 전달, 이렇게 해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이 자체 단어가 너무나 실감이 나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이고 또는 진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이름이죠, 이름만으로도. 예전에 이조 때에 탄압을 받아서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고 하면은 그 앞에만 갖다 놓으니까,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으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써먹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개선을 해야죠. 그죠? 잘못된 거는 고쳐 가면서 써야죠.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고요. 옛날에 부처님한테 어느 제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맑고 깨끗한 하늘 눈으로 보니까 여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율이 너무 많으니 그건 무슨 까닭이며 또는 여인들에게는 계율을 많이 매기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이며 또 여인들은 성불하기가 극히 어렵다 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지 그 세 가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진 못하는데 거슬러 가는 향도 있습니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께서나 또 깨달은 분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 그것이 지금 현시점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니라. 지금은 남정네들이 열 처를 둔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여자들이 함부로 바깥에 출입을 못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탐욕과 집착과 미움과 증오 또는 애욕, 정욕, 질투 이런 것이 여인네들 마음속에 꽉 차 있으니 어찌 성불하기가 쉽겠느냐? 그러니 잘 생각해서 계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옥에 많이 떨어지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니라. 그런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섯 가지 마음의 계향을 마친다면 자재천에 들어 아주 자재로이, 이 계율도 더했다 덜했다 이런 것도 없을 것이지마는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을 것이니라. 성불을 한다 못 한다도 없을 것이니라. 여자 남자도 없을 것이니라. 이 모두가 길고 짧음도 없을 것이고 어제 오늘 내일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그 까닭은 그 수행을 다 마쳐야, 끝마쳐야 되느니라."

다섯 가지, 엊그저께 내가 오계향을 얘기했죠? 이 세상에 내가 났으면 바로 내 탓으로 일체 만법을 돌려라. 그런다면 증오도 미움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법에 누가 되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도 없이 계율을 지키게 돼 있고, 바로 자기가 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둘째, 이 모든 것을 내가 난 탓으로 돌리니까,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기고 들고 나고 하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모든 것을 '잘못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잘되게 나오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가 놓고,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는 그 마음이,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마음이 듦으로써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내면세계와 물질세계를 둘로 보지 않는 관찰 그리고 체험,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셋째.

또 넷째, 그렇게 둘이 아니게 관찰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내 자생 중생의 무명,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무명이, 묶여 있던 것이 스스로 풀어진다 이거야. 스스로 풀어지고 스스로 묶였던 게 풀어지니까 여여하게 다스리고 그냥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무명이 나에게 닿기만 하면 그 무명이 무너진다 이거야.

다섯째, 이 해탈지견향. 이 모든 삼라만상 만물만생, 그 만물만생을 느끼는 거. 느끼는 거는 마음으로 항상 느끼죠? 느끼고 보살핌이 항상 밝아. 여여하고 항상 밝고 걸림이 없어. 그래서 구족함을 해탈지견향. 거기까지 마쳐야만이 여자 남자도 없고, 더하고 덜함도 없고, 즉 말하자면 성불을 한다 못 한다도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도 없고, 계율을 더 준다 덜 준다도 없고, 모두 이런 것이 소멸되고 자재천에 들어서 자유롭게 나툴 수가 있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고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는데, 거슬러 가는 향이 있습니까?" 하고 아까 물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다섯 가지 향, 그 다섯 가지 계향을 마치고 난 뒤에도,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요, 둘째는 전체 놓는 거야, 우리들 지금 놓듯이. 다 어떤 거든지 다 놔서 다 버리는 거다 이거야. 다 놓는 거야. 다 놔서 다 얻는 것을 둘째라고 한다. 다 놔서 다 얻는 것! 다 놓게 되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다 놔서 다 얻은 거를 둘째.

셋째는, 다 놔서 다 얻었다면은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너 나 할 것 없이 보시를 달라고, 천차만별로 달라고 하더라도 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완결돼야 바로, 그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기만 할 수밖에 없다. 바람을 거슬러 가는 향도 있는 것은 그 다섯 가지의 계율을 다, 마음의 계향을 다 마치고, 또는 세 가지 조건까지도 마치고 난 뒤에야 거슬러 가는 향이 있느니라. 그러니 그때 가서는 거슬러 간다 거슬러 가지 않는다도 없느니라. 사방팔방에 모든 향음이 어느 법계에나 어느 일체 중생에도 닿지 않는 데가 없기에 그 종소리가, 종을 치면은 종소리가 났는데 그 종소리를 일체 만물이, 만물만생이 다 듣듯이….

그래서 그 모두가 우리가 마음의 문제요, 마음을 계발하고 또는 발전시키는 데 문제요, 발전시키려면 잘 이롭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렇게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서는 사방이 툭 터졌을 것이요, 지붕도 없을 것이요, 땅도 따로 없을 것이요, 그러니 평등공법이면서 활궁공법이면서 또는 수레공법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5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화재로 고통받은 모든 생명들에
부처님 자비 두루하길 발원합니다.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